

# 세계 ODA 사업 동향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본 내용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과의 협력 아래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개발사업 관련 주요 ODA사업에 대한 소개

개발도상국들은 낙후된 교통인프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우기 시 도로침수현상이 일어난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차량통행으로 도로 주변의 유적지들의 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개발도상국의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정보 전산화 사업,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역량 강화사업, 도로관리에 관한 우리의 선진기법을 전수하는 한국순환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ICA의 도로 관리 및 제도의 개선 지원사업이 개발도상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코이카, 앙코르와트 유적 보호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우회도로 건설사업(2005~2006, 160만 달러)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우회도로 포장사업(2008~2009, 430만 달러)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한국순환도로 2차 사업(2010~2013, 1,150만 달러)

캄보디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앙코르와트(Angkor Wat)이다. 찬란했던 고대 크메르 제국의 유산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Siem Reap)에 위치한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2014년 방문 관광객은 약 235만 명에 이르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엠레아프 관광산업 발달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숙박

및 관광시설의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OICA는 앙코르와트 유적을 우회하는 도로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앙코르와트 유적의 보호 및 인근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로포장 및 건설을 지원하였다. 이 도로는 '한국순환도로(Korean Ring Road)'라고 불리며, 총 35.7km에 이른다.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지역은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각종 차가 앙코르와트 인접 및 내부 통행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유적지 훼손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시엠레아프 지역 내 발생하는 건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건설 차량과 시엠레아프 북부지역에 있는 채굴장에서 출발하는 많은 화물트럭이 앙코르와트를 통과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각종 분진과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과적 차량으로 앙코르와트 유적 훼손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시엠레아프 외곽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도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우회도로 건설을 요청하였다.

KOICA는 2005~2006년 1차로 흉토 포장의 도로를 신설하였고, 뒤이어 2008~2009년 2차 사업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해 도로 관리에 대한 우리 선진 기법을 전수함으로써, 캄보디아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1~2차 사업 구간(15.2km)이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이었고, 앙코르와트의 중차량 통행 분산효과를 낳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2010년부터 앙코르와트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도로건설과 더불어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중차량 통제소 2곳을 신설함으로써, 과적 차량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1~3차에 걸쳐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우회도로 포장 및 중차량 통제소 건립,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통해 현재의 한국순환도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순환도로의 파급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우회도로 구간을 통해 각종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앙코르와트 지역 내로 무분별한 차량 통행을 방지하고 분산함으로써 유적지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앙코르와트 내부도로를 통행하던 트럭과 대형차들을 유적지 외곽도로로 유도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고, 차량 진동으로 인한 소음 및 배기가스가 감소하여 유적지 보호는 물론 관광객들의 방문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학생들의 통학, 상인들의 이동 등이 원활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형성에 기여하였고, 직장인들의 통근이 편리해져 시엠레아프 중심지역 내 자취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도로 건설 이전 우기에 일

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침수 발생으로 도로 통행이 어려웠으나 건설 이후, 원활한 통행 및 이동 경로 단축에 따른 시간 절약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KOICA-아시아나항공과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2011~2012년 사업기간에 51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지원하였다. 부족한 전력사정을 고려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감소, 앙코르와트 방문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국순환도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도 가시화되는 성과를 낳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우회도로 사업의 건설관리를 맡아 캄보디아 현지 도로 건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후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

표1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한국순환도로 사업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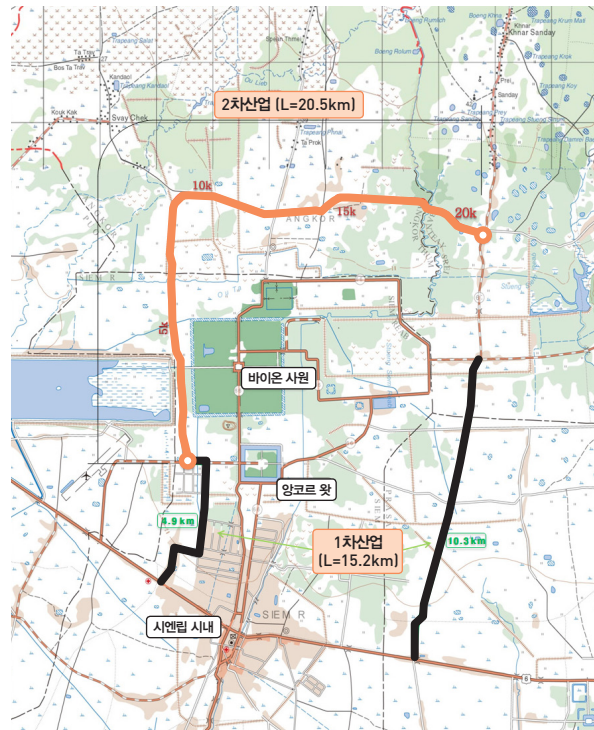


표2 KOICA-아시아나항공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원된 가로등과 한국순환도로 2차 사업 시 설치된 기념비



표3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한국순환도로의 안내 시설물



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 MPWT)에서 발주한 도로사업을 수행하였고, 시공사인 신동아 종합건설도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발주되는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려,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KOICA는 한국순환도로 건설을 통해 앙코르와트의 유적 보호라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캄보디아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을 나눌 기회가 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통한 민간차원에서의 기술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시엠레아프 지역의 발전은 지속할 것이다. 그 발전 속에서 한국순환도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리라 믿는다.

작성자 : 서정환 캄보디아 사무소 부소장

## 코이카, 방글라데시 ‘교통행정정보 전산화 사업’으로 교통 분야 발전에 초석 이뤘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정보 전산화사업(2012~2015/270만 달러)

방글라데시, 그 중 수도 다카(Dhaka)의 교통체증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차가 없을 때 15~20분 걸리는 거리를 보통은 1시간 이상 걸려서 이동하고 있고 이마저도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이면 평소의 2~3배가 걸리기도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흔한 변명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이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체증은 과밀한 인구, 무질서한 신호체계, 열악한 도로 인프라, 도로를 가득 메운 재래식 교통수단 리샤(자전거 형태의 인력거), 교통행정역량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특히, 교통행정역량 부족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기준이 모호하고 자동화된 검사장비가 없어 수동으로 자동차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등 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 가짜 차량 번호판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등에 대한 단속역량 부족으로 무면허 불법 운전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ICA는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정보 전산화사업(2012~2015/270만 달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Bangladesh Road Transportation Authority, BRTA)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자동차 검사센터 구축, 전산화 기자재 지원, BRTA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데이터센터가 구축되고 전산화 기자재가 지원

그림1 리사와 자동차가 혼재한 방글라데시의 교통상황



되면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BRTA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BRTA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고 방문 시 대기시간도 길어 시민의 불편이 큰 상황이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웹 포털을 통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고 온라인으로 면허발급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휴대전화 SMS를 통해 운전면허증, 차량 번호판 등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찰, BRTA 직원의 단속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자동차 검사센터가 구축되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글라데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방글라데시의 교통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KOICA의 지원이 방글라데시 교통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

작성자 : 최준호 방글라데시 사무소 부소장

## 베트남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다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 (2015-2017/150만 달러)

베트남 정부는 국가발전계획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기반 구축의 하나로 고속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약 500km의 고속도로를 운영 중이며, 향후 2030년까지 약 5,800km의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적역량, 시설, 장비 및 관련 제도 정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고속도로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운영관리 관련 법령 및 기준, 매뉴얼 등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4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내에 고속도로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운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베트남 정부는 다자(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또는 양자(JICA 등) 기구를 통해 도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협력을 지원받아 고속도로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 사업들은 베트남의 현지 실정을 반영하기보다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사업방향은 베트남 정부가 필요한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보완과 인적역량 강화보다 원론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4년 6월 KOICA에 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요청하였다. KOICA는 이에 대응하여 2015~2017년간 총 150만 달러를 투입하여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관련 법 제도 건설

팅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재해재난 대응, 작업장 안전, 교통센터 운영, ITS 관리 등 4대 분야) △고속도로 유지관리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현지연수 및 초청연수) △고속도로 유지관리 차량지원(순찰차 및 견인식 싸인 카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지원으로 베트남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무·유상 사업 간 연계모델로서의 의미도 있으며 국내에서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KOICA와 공공협력을 통해 진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국내 고속도로 관리에서 축적한 경험과 베트남에서의 도로건설사업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 이종수 동남아시아 1팀 과장